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0월 25일(주일) 제1071호



순교의 피 흐르는 오이타 간다!

일본인 2,800명에 초대장 발송, 한국인 봉사자 524명 참석
28~29일 가정세미나, 가스펠 나이트, CEO포럼, 러브소나타 집회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28일과 29일 23번째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내일의 희망'을 주제로 막으른다. 28일에는 오이타 교계 목회자 및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정세미나와 가스펠 나이트 집회가, 29일에는 한일 크리스천 리더십들 교류의 장 CEO 포럼과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가 열린다.

지금 오이타 현지는 코앞으로 다가온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교회가 67개 밖에 없는 오이타현에서 열리는 행사에 협력교회 70개가 모인 것이 고무적이다. 오이타현뿐만 아니라 후쿠오카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야마구치현 교회들이 협력했다. 일본인 2,800명에게 초대장도 보냈다.

오이타복음그리스도교회 후루타 교도 성도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위해 물질, 시간, 기도로 헌신해 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했고, 그리스도복음오이타교회 구기미야 다카에 목사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는 분명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러브소나타 한국본부도 막바지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에는 한국인 봉사자 524명이 참가한다. 일반팀 158명을 비롯해 양재 권사회 79명, 장로합창단 40명, 부전 여성사역팀 27명, 복지재단 27명, CGNTV운영위원 37명, CEO포럼스쿨팀 59명, 출연자 및 스태프 97명이 참석한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참가자 교육이 실시됐다. 오후 2시 양재 화평홀에서는 양재권사회,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는 일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오이타는 규슈에 위치한 인구 117만 명의 소도시다. 1578년 오이타 지방 영주였던 오토모 소린이 세례를 받은 후, 이 지역은 크리스천 인구가 1만 명이 넘는 정도로 부흥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독교 박해에 의해 오이타현내 1,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발생했다. 그 사건 이후 오이타 기독교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통해 기독교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서빙고 안전교육 및 체험 실시

서빙고 안전위원회, 오늘 구 골프연습장 마당에서

서빙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오늘 2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인근 구 골프연습장 마당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AED)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서빙고 안전위원회는 지난 주일(18일)과 20일에 '2015 안전교육 및

체험'을 실시했다. 18일은 성도, 20일은 목회자와 교회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서빙고 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청구 장로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샤론데코팀 봉사자 모집

샤론데코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교회 행사에 필요한 꽃 장식을 손수 만드는 봉사팀이다. 교회 초창기부터 강대상, 본당, 테이블 센터피스 등을 만들었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하는 화관과 임직식에서 사용하는 코사지도 제작하고 있다.

매년 4,000개가 넘는 화관을 만들고 있다. 30주년 선교대회 화관도 제작했다. 선교대회에서 사용한 화관은 오대양육대주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금면류관을,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하는 화관은 죄가 씻겨, 청결케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의미다.

문의: 02-3215-3717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분야: 취재기자
대상: 문서선교에 헌신한 분
취재 및 제작 경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기명기사
서류접수: one@onnuri.org
문의: 02-3215-3193

나는 이렇게 예수바보행전을 쓰겠다

1. 목회자 2. 선교사 3. 성도

“내가 죽는 삶을 사는 바보 선교사”



나는 20년 넘게 동아시아 B국에서 사업을 했다. 사업차 동아시아 B국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농민, 장사꾼,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 나라의 허와 실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그곳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동아시아 B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모임을 5년 동안 섬겼다. 2009년 선교사가 되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B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다. 특히 온누리교회 양육의 근간인 큐티와 일대일을 현지교회에 전하기 위해 세미나와 강연을 열심히 했다.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선교 정신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안식년을 맞이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차에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4일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에 ‘예수바보행전’이라는 메시지가 선포 되었다. 나는 그 설교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예수바보행전,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는 오직 그 단어밖에 없을 것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수많은 사역팀들이 있다. 오죽 사역이 많으면 사역조정위원회까지 생겼을까. 수많은 사역팀들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 사역에만 집중하다보면 융합하기 힘들다. 그래서 ‘융합선교’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사역에만 치중하다보면 협력보다 결과물에 집중하는 면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위태롭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선교지로 나가기 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 걱정했고, 기도했다. 한국 교회의 쇠퇴기가 너무 빨리 온 것이 안타깝다.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특히 온누리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기도했다. 온누리교회가 변화되면 쇠퇴하는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재훈 목사님이 새롭게 선포한 예수바보행전 이 비전에는 내가 걱정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었다. 온누리교회가 진짜 예수바보교회가 된다면 한국 교회 또한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든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예수바보행전은 써내려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사역이며 연합사역이다.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다. 선교사들이 협력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공동 프로젝트다. 네 사역 내 사역을 가리기 시작하면 예수바보는 나올 수 없다.

나는 그동안 현지교회 뿐만 아니라 선교사끼리 연합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수바보행전 비전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모두 쏟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바보 선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바보 선교사로서 날마다 어떻게 죽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다.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같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도 되새길 것이다. 그런 나를 보고 누군가 “온누리교회 선교사는 다르구나!”를 외칠 수

있도록 말이다. 그것이 내 나름의 예수바보행전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다. 말도 안통하고 기후와 문화, 음식도 맞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보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것이다. 죽는 삶을 살 때 선교지와 사역이 살아난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살아난다.

다양한 나라와 단체와 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지교회와 함께하는 사역이 별로 없다. 현지교회와 함께 사역을 했더라면 동아시아 B국이 더 빨리 선교강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았을까. 보안지역이라 구체적인 사역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동아시아 B국이 선교한국과 같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 예수바보 정신으로 무장한 선교사들이 현지교회와 함께 동역해 나아간다면 동아시아 B국도 언젠가는 예수바보행전에 동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 김온누리 선교사(동아시아 B국)

“땅 끝까지 전하겠다는 소망만 붙잡고”

2008년부터 남아시아 I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나는 선교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선교사로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남아시아 I국으로 보내셨다.

내가 파송받은 지역은 당시만 해도 여행자 제구역이었다. 몇 해 전 발생한 재난으로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곳이었다. 폐허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이곳은 이슬람 특별자치구다. 길거리를 지나는 외국인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걱정했다.

지금도 위험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는 A지역 사람들이 싫지 않았다. 그곳에서 사역한 3년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사역지가 바뀌면서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오긴 했지만 언젠가 또 그 지역에 가고 싶다. 그만큼 그곳이 좋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이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못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하고 싶다.

이번에 30주년 선교대회에 참가하려고 모처럼 한국에 왔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에 선포된 ‘예수바보행전’ 비전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 온누리교회 안에 예수의 정신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고 기뻐다.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재훈 목사님은 부흥비전집회 3일 동안 위험한 교회, 낮 아

진 교회, 연약한 교회에 대해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이 중에서 나는 위험한 교회라는 주제가 가슴 깊이 와 닿았다. 두 가지를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다.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일일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내 입장에서 위험한 교회는 무엇이며, 진짜 위험한 선교사는 무엇일까에 대해 정리하게 되었다. 복음 전파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3-24).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을 주셨다. 솔직히 나라면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며 좋아했을 것 같다. 그곳을 보란 듯이 피해 다녔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핍박의 예언을 듣고도 위험한 지역으로 갔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핍박과 고난보다 자기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주셨는지 땅 끝까지

가서 말해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화살 같은 사람이다. 화살은 한 방향으로만 가서 과녁에 꽂혀야만 멈춘다. 그는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피하지 않았다. 오직 땅 끝까지 전하겠다는 소망 외에는 다른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바보 정신이다.

바보는 똑똑하지 않다.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한다. 바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듣고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예수바보행전이라는 새 비전을 듣고 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만 스무 개가 넘는 종족들이 살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해 발사된 하나의 화살에 불과하다. 과녁에 꽂혀 멈추기까지 나는 이 소망만을 품고 나아갈 것이다. 위험하지만 바보처럼 살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다. 이 땅에 살면서 10년, 2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주님이 끝내라고 주신 사명, 바보처럼 살지 않으면 끝낼 수 없는 사명, 내가 그 소망 외에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으리요.

/ 박 선교사(남아시아 I국)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11~26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목격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에 이르렀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증거의 책임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내가 뽑은 내 종이다. 내가 너희를 뽑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앞서 만들어진 신이 없으며 나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사 43:10).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먼저 알게 하고, 열방에 증거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불러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교회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증인이요, 사도들의 정체성도 증인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정체성도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단어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고백이요, 증인들의 행적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부터 증인으로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12절).

베드로의 이 말이 참된 증인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증인은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는 주인공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 실패합니다.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16절).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뤄진 일입니다. 교회가 주목의 대상이 되면 증인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도구가 된 사람이 주인공이 되거나 주목을 받으면 그것은 증인으로서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히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의 통로와 도구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증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죄인들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13~15절).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당신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여러분이 빌라도를 압박하여 풀어주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분이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 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까. 네 종류의 사람들이 가담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유대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유대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지키려는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겼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한 사람들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함치던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인 사람들만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화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지만 한국 땅에 오셨더라도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 10:17~18).

인간 차원에서 보면 가롯 유다에 의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 의해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서 군병들에게,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보내졌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그곳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된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멸망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회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증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멸망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19절).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이 참된 증인의 고백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증언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회개를 요청합니까. 복된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온누리신문·CGNTV 공동기획
잊혀진 여성 선교사를 만나다

조선에 온 선교사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다.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사상으로 남녀가 함께 있는 것마저도 금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남성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조선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성 선교사들이었다. 여성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계몽운동도 함께 펼쳤다. 그들은 전도부인이라고 불리며 전국 방방곡곡에 발음을 전했다.

메리 스크랜튼(Mary Scranton, 1832~1909)은 한국을 찾은 여성 선교사들 중 한명이다. 그녀는 183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 21세의 나이에 결혼해 슬하에 외동아들 윌리엄 스크랜튼을 두었다.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그녀는 40살 때 남편과 사별했다. 평소 선교에 관심 있던 그녀는 예일 의대를 졸업한 아들에게 한국으로 선교하러 가자고 권유했다.

메리 스크랜튼은 아들 부부와 손녀, 아펜젤러 부부와 함께 미국을 떠나 조선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조선에 들어올 수 없었다. 당시 조선은 1884년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외국인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메리 스크랜튼은 “일본의 선교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서 한국에 가서 내 사람들

과 함께하길 바랍니다”라며 한국 선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초의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1885년 6월 20일 마침내 그들이 인천에 도착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 52세였다. 메리 스크랜튼은 한국에 온 최초의 여성 선교사다. 그녀는 서울 정동에 자리를 잡고 교육선교를 시작했다.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여성들과 아이들이 그녀를 피했다. 1886년 5월 31일 드디어 기다리던 첫 학생이 입학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뒀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입학생이 왔다. 학교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라고 보낸 것이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찾아와 스크랜튼 선교사에게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약속을 받은 후에 돌아갔다.

세 번째 입학생은 콜레라에 걸린 여성의 딸이었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1886년 정동에서 병원을 만든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박사의 첫 번째 환자가 되었다. 1887년 명성황후는 이 학교의 이름을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고 지어줬다. 이 학교가 지금의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의 전신이다.

메리 스크랜튼은 여성 전문 의료기관을 만들기도 했다. 여성들이 남성 의사를 만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 병원의 공간을 빌려 여성들을 진료했다. 1888년 11월 이화학당의 한 한옥을 개조해 여성 전문병원을 만들었다. 고종은 이 병원의 이름을 ‘보구여관(保救女館)’이라고 지어줬다.

메리 스크랜튼은 여성들을 위한 주일학교도 만들었다.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을 보장해 주려는 그녀의 노력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모였다. 1889년 한해 주일 저녁집회에 참석한 여성이 무려 1,064명이나 되었다. 1889년 2월에는 최초의 여성교회도 설립했다. 이 교회는 당시 조선에서는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리 스크랜튼은 이화학당이 자리를 잡자 로드 와일러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1891년 안식년을 얻어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간다. 1892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전도부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녀는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튼과 상동교회를 개척했다. 당시 그녀가 가르친 전도부인은 모두 9명이었다.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1년간 4,000가정을 방문했고, 복음을 전한 여성이 2만 명이 넘었다. 그녀는 노년까지 한국에서 여성들의 교육과 선교에 헌신했다. 1909년 10월 8일 향년 77세의 나이로 상동 자택에서 소천했다. 현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있다.

여성운동의 선구자 '여메레 전도사'

메리 스크랜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 여성이 있다. 그녀는 고종 황제 곁에서 영어 통역을 맡았던 여메레(1872~1933) 전도사다. 여메레 전도사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없었다. 마산의 여 씨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집에서 키우면 일찍 죽는다’는 점괘에 겁을 먹은 부모가 메리 스크랜튼의 집 앞에 버리고 갔다. 여메레는 당시 10대 중반이었지만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다. 메리 스크랜튼은 그녀를 양녀로 받아들이고 이화학당에 입학시켰다. 세례를 주면서 자신의 이름 메리(Mary)를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르기 쉽게 ‘메레’라고 불렀다.

여메레는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죽었다. 여메레 전도사는 정동교회에 출석하며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했다.

여메레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를 타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1897년 8월 정동교회는 남성 지회 ‘월은회’, 여성 지회 ‘조이스회’를 조직했다. 여메레는 조이스회 부회장이 되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 해 말, 정동교회 봉헌 기념으로 청년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는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맞나?’였다. 당시 여성 회원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어야 했고, 남성들이 나서서 찬반 토론을 했다. 그때 찬성편에 서재필과 조한규가 반대편에 윤치호와 김연규가 있었다. 당시 윤치호는 여성 교육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성경에 보면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인류 타락의 근원이 되었다. 여성에게 지식이 들어가면 좋을 것이 없다.”

성경을 근거로 여성 교육 불가론을 피는 윤치호의 연설에 찬성편의 연사들이 입을 다물었다. 상황이 윤치호 쪽으로 기울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비록 하와가 죄를 지었으나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예수가 어찌 세상에 오셔서 죄를 구원 하였으리요 성경에서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시오!”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메레였다. 그녀의 발언에 많은 여성들이 박수로 응답했다.

여메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 생활이 어려운 과부나 부인들을 도와주는 단체 ‘보호여회’를 만들기도 했다. 보호여회가 감리교회 여성교회로 발전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30여 명이 모였는데 현재는 10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회가 크게 흥하여 여러 만 명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여메레의 창립기도가 이뤄진 것이다.

조선에 특수교육 도입 '로제타 셔우드 홀'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 선교사는 뉴욕 설리번 카운티에서 태어났다. 1885년 펜실베이니아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던 중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캐너드 찬들러 여사와 토번 여사의 말이 계기가 되었다. 그녀들은 인도에 의료 선교사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로제타 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빈민가 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곳에서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났다.

메리 스크랜튼이 만든 ‘보구여관’은 여성 전문병원으로 수천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몰려왔다. 보구여관 의사인 하워드 박사는 환자들을 돌보다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미국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WFMS)는 하워드 박사 대신 로제타 홀을 한국으로 파송했다. 그렇게 로제타 홀은 1890년 10월 제물포 항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로제타 홀로부터 시작되었다. 남편이 평양에서 전도를 한 교인의 딸 ‘봉래’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로제타 홀이 소녀에게 점자를 알려준 것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시초다. 로제타 홀은 어릴 적 배웠던 점자를 직접 기름종이에 점을 찍어 가며 가르쳤다. 점자 교육을 시작할지 한 달 만에 동학 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발발해 서울로 철수해야만 했다. 설상가상 남편이 병사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로제타 홀은 미국에서 점자 교육을 다시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다. 1897년 그녀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그녀는 보구여관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었다.

72%가 여성이었다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로제타 홀, 여메레, 박에스더 삶 조명
CGNTV 11월 1일 다큐멘터리 방영 ... “몰라도, 잊어서도 안 된다”



메리 스크랜튼



로제타 홀



여메레



박에스더



경안부인도시경회에 참석한 여성들.

1898년 평양으로 돌아간 그녀는 다시 봉래를 만나 새로운 교재로 교육을 시작했다. 봉래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로 성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한국 최초로 평양학교에 시각장애인반을 개설했다.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위해 ‘게암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의료활동

수많은 여성 환자들에 비해 여의사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미국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에 의사를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장로교와 의료 선교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기도 했다. 의학 훈련반을 개설해 4명의 한국 소녀와 1명의 일본 소녀를 가르치기도 했다.

로제타 홀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의료활동’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의사 교육을 시작했다. 한국 여성들이 공부해서 조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당시 사회는 여성의 직업참여를 꺼려했고, 여성들도 피를 보는 일을 기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설득으로 여러 명의 여성들이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들이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여의사로 활동하게 됐다.

로제타 홀은 여성과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다. 한국 의료사역이 자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 의사들에게 사역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1928년 9월 교육을 시작했다. 여자 의학 강습소에서 18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 로제타 홀의 이러한 노력 끝에 1934년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5명이 의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그들은 한국 최초의 여자 의학 교육기관에서 탄생한 의사들이었다.

로제타 홀은 1893년 한국에서 4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아들은 한국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셔우드 홀 박사다. 그는 ‘크리스마스 섬’을 만든 장본인이다.

최초의 여성 의학박사 ‘박에스더’

로제타 홀이 ‘보구여관’에서 의학 훈련반을 개설하고 소녀들을 가르쳤다. 그 중 한명이 김점동(박에스더, 1879~1910)이었다. 김점동은 의학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영어 실력이 좋아 병원에서 통역을 하려고 데려온 소녀였다. 어느 날 로제타 홀이 구순구개열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 길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점동은 로제타 홀의 남편인 윌리엄 홀의 일을 돕던 성실한 청년 박유산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로제타 홀의 남편이 병으로 죽자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게 되었다. 김점동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미국으로 함께 떠났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남편의 성인과 박과 세례명인 에스더로 이름을 바꾸고 의사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남편

박유산은 로제타 홀의 친정 농장에서 일하며 그녀를 뒷바라지했다.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박에스더가 1900년 6월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다. 그녀가 학위를 받기 20일 전 남편 박유산이 고된 노동 끝에 걸린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박에스더는 남편의 회생으로 얻은 학위로 부귀영화를 좇지 않았다. 안정된 미국의 의사 자리를 마다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통역을 했던 보구여관의 의사가 되었다. 병에 걸려도 남성 의사에게 보일 수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도왔다. 열 달 동안 3천 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았다. 그 후 로제타 홀이 세운 평양의 ‘기흥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쉬지 않고 진료했다.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료로 진료 활동을 펼쳤다. 간호사 양성소를 세우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10여 년을 보낸 뒤 박에스더는 남편을 쓰러뜨린 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들

이외에도 잊지 말아야 할 여성 선교사들은 한둘이 아니다. 1910년 여성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학교정 이화학당 대학과를 개설한 톨루 E, 프라이(Lulu Edna Frey) 선교사. 교과서 번역, 문서선교, 찬양집 편찬을 한 애니 베어드(Annie L. Baird) 선교사. 수피아 학교와 애

양원을 섬겼던 ‘광주의 어머니’ 플로렌스 루트(Florence E. Root) 선교사 등 우리가 몰랐고 잊고 있었던 수많은 여성 선교사들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녀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할 때다. 그녀들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에 선교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CGNTV가 내한선교사 130주년, 개국 10주년을 맞아 여성 선교사들을 조명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선교토크 ‘여성·사랑·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와 방송인 이성미가 진행을 맡았다. 이덕주 교수(감신대), 이경숙 교수(이화여대), 박정희 작가(미국 뉴욕주립대) 등이 패널로 출연한다. 선교토크 ‘여성·사랑·복음’에서는 여성 선교사의 역할,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메리 스크랜튼과 로제타 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큐멘터리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도 제작했다. 2명의 미국인 여성 선교사와 2명의 조선의 여성리더를 조명했다. 미국, 일본, 한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로제타 홀 선교사의 일기장과 숨겨진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CGNTV 방영〉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11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선교토크 ‘여성·사랑·복음’
11월 1일(일) 오후 8시 30분



“예수님 전하고, 사람 살리겠습니다”

고국으로 파송된 아치트 선교사

“몽골로 돌아가면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겁니다!”

아치트 전도사가 올해 11월 정들었던 한국을 떠나 고국 몽골로 간다. 그는 몽골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로 살아갈 예정이다. 아치트 전도사는 온누리M미션이 전도해 고국으로 역파송하는 선교사다. 아치트 전도사는 한국에 온지 올해로 12년 되었다. 현재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학을 공부했다.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 결혼도 했다. 그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아치트 전도사가 한국에서 만난 예수 이야기를 들려줬다. 코끝을 간질이는 간증은 덤이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아치트 전도사는 학창시절 전교 1등만 하던 인재였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 시절 선배를 잘못 만나 술과 담배, 여자, 폭력에 물들었다. 그 때부터 탕자의 삶을 살았다. 결국 그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갈 곳이 없자 군대에 자원입대했다. 군 생활도 녹록치 않았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5년 전 몽골에는 대학교에 합격하면 군대를 6개월 전에 제대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다. 아버지를 설득해 농업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다.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다. 그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는 학교를 포기한 채 친구들과 돈을 벌기 위해 산과 들로 금을 캐러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몽골에서는 금을 캐면 폐돈을 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굴하러 다녔다. 아치트 전도사는 그 당시를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회상했다. 그는 패싸움을 일삼았고, 총칼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다. 빈털터리 신세로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를 급하게 찾았다.

“네 큰형, 갈트가 쓰러졌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단다. 병으로 다 죽게 생겼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오랜 방황 끝에 돌아간 집은 울음바다였다. 그의 형을 걱정하는 가족들은 아치트 전도사에게 당장 한국으로 가서 형을 도우라고 당부했다.

한날한시 수술 받은 삼남매

그는 2003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그의 형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신장에 문제가 생겨 눈도 뜯 수 없던 상태였다. 그는 지난 날 몽골에서의 과거를 청산하고, 한국에서 형의 치료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밤낮없이 일하기 시작했다. 형을 살리려면 목돈이 필요했기에 정말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형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를 추천했다. 그의 형은 이미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아치트 전도사도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을 만났다. 그 주인공은 당시 온누리M미션을 담당했던 이경희 목사다. 이牧사는 그가 오랜 방황을 청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줬다. 뿐만 아니라 형의 치료비도 후원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줬다. 온누리교회는 그의 가정에 생명줄과 같았다.

그는 2005년 세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가 온누리교회 온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눈에 띄게 피아노를 잘 치는 자매가 있었다. 그녀도 몽골인이었다. 둘의 관계가 발전해 결혼에까지 골인했다.

2007년에는 형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었다. 그는 형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직검사 중에 그가 신장암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형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겠다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줄 수 없었다. 결국 여동생이 오빠에게 신장을 이식하게 됐다. 형과 아치트 전도사, 여동생이 같은 날 수술을 받았다.

삼남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줄이 연장되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온누리교회의 도움으로 삼남매 모두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아치트 전도사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포했다.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입학했고,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목회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는 어릴 적부터 고난이 심했다. 아버지로 부터 잦은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방황했다. 청년 시절에는 아버지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가출까지 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달라졌다. 그렇게 미워



온누리M미션 동역자들과 함께(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했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 보았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날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행운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영원한 기쁨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몽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남은 가족들 모두 한국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놀라웠다. 그의 편지를 읽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왔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례 받은 날 온누리M센터는 눈물바다가 됐다. 아치트 전도사의 부모도 예수를 영접했고, 부둥켜안으며 지난 날 아들에게 줬던 상처를 고백했다. 그의 아버지는 몽골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 평택 온누리교회에 몽골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생겼다.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에 관심있던 한 성도의

후원으로 봉고차도 생겼다. 몽골인 뿐 아니라 더 많은 이주민들을 전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가 쓰게 될 예수바보행전

아치트 전도사는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한국어를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녹음해 매일 듣고 다녔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용조 목사부터 이재훈 목사까지 온누리신문에 나온 설교를 빠짐없이 모으고 있다.

또한 아치트 전도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몽골인들을 섬기고 있다. 그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7월 TP(터닝포인트)선교사 훈련도 받았다. 그는 올해 11월 몽골로 돌아간다. 그는 몽골에서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그가 몽골에서 쓰게 될 예수바보행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기도제목

-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온누리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 11월 몽골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 몽골에서도 선교사를 양육하는 자가 되도록.
- 우리 가정이 종교로 인해 탄압받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 앞으로 온누리M미션 사역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혼의 쉼터로 오세요”

개인 및 집단상담,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

온누리교회 상담실을 소개합니다

1. 서빙고 상담실
2. 양재 상담실

양재 온누리교회 이미정 성도(가명)는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자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고민하다 양재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실을 찾을 때 만해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미정 성도는 자녀와 교감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어린 시절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그녀는 양재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녀가 달라지자 아이도 변화됐다. 자녀와의 갈등도 원만히 해결되고, 관계도 회복됐다. 자녀에게 “최고의 엄마”라는 칭찬도 들었다.

이미정 성도는 “양재 상담실은 영혼의 쉼터”라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양재 상담실을 찾아가라”고 적극 독려했다.

어려움 해결하고, 마음 치유하고

양재 상담실은 2006년 6월 문을 열었다. 그동안 마음이 아프고, 지친 수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을 통해 개인, 부부, 가족, 사회,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치유 받았다. 믿음도 회복했다.

지난해 양재 상담실을 찾은 내담자들은 우울·불안(18%), 성격(12%), 부부(11%), 법률(11%), 가족(9%), 대인관계(9%)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위하여 양재 상담실에서는 정체성 확립,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회복, 부부문제, 신앙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상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성격검사(MMPI, MBTI, 이고오케이그램, 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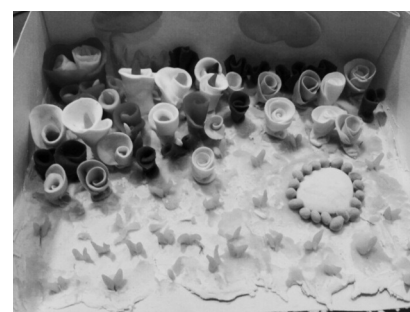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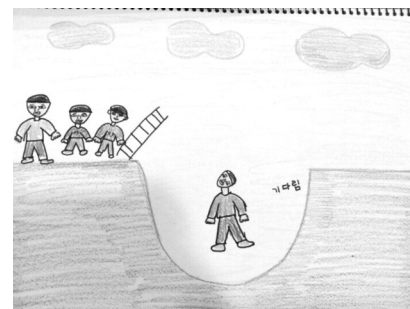


양재 상담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을 돕고 있다.

어그램), 학습 및 진로검사(역기능가정검사지, U&I학습유형, 진로적성검사), 투사검사(문장 완성검사, BGT검사), 자기진단(성인아이, 자존감, 중독성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쁨시작-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가족&마음치유’ 등의 집단상담 프로

그램을 운영했다. 11월 25일에는 ‘마음치유 미술집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재 상담실에는 10명의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양재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양재 상담실에서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 봉사자들을 항상 모집하고 있다. 석사



미술치료 한 장면.

이상 상담분야 유경험자가 대상이다.

양재 상담실을 이용하려면 전화 또는 방문해서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상담료는 무료다. 상담시간은 회기 당 50~60분이며, 7~15회기 동안 상담을 진행한다.

문의: 02-570-7536~7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16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예정)

집단상담	상담내용
독서치료 집단-사랑과 행복, 그 이상의 결혼이야기	■ 결혼생활에서 하나님 발견하기, 거룩한 존중, 영혼의 포용, 죄를 씻는 결혼, 성욕을 지닌 성자들, 거룩한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찾아가는 길	■ 솔직하고 정확하게 나의 성격적 결함을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마음치유 미술집단	■ 하나님과 아버지, 내 감정 명확히 만나기, 나의 어머니, 먹물 데칼코마니로 내면만나기, 10년 후 나의모습, 돌려가며 그리기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 사회적응능력, 자존감향상, 작은 영성 키우기
여성을 위한 미술치료	■ 단기 대상관계부부치료

상담 내용 및 운영시간

기독·심리상담

- 화요일~금요일 10~17시
- 토요일~주일 10~15시

법률상담

- 매 주일 10시 30분~12시

세무상담

- 둘째 주일 10시 30분~12시

상담 간증

나는 지인으로부터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미술치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았다. 나는 9년 전 주식투자 실패로 사회와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팠던 허리디스크가 재발해 직장을 그만 둔지도 오래였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렵고 떨렸다.

미술치유 집단상담 첫 번째 시간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를 그렸다. 나는 약속에 대한 강박관념과 스트레스로 몇 안 되는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상담 선생님에게 “약속에 대한 강박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상담 선생님은 뜬금

없이 “아버지가 어릴 때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대하셨나요?”라고 질문하셨다. 그 질문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약속에 늦는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던 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상담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정규님 잘못이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강박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금은 약속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 생전 처음으로 “팔남매 기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어머니가 불쌍

하고 안쓰러우면서도 원망이 가득했다. 농사일 하느라 나에게 관심도, 사랑도 없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알게 됐다. 순간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사라졌다. 1년에 한번 전화할까 말까하던 내가 이제는 전화를 자주 한다.

미술집단 상담이 끝날 즈음 내 마음이 많이 변화되어 있었다. 나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목표와 꿈이 생겼다. 나도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다. 무엇보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미워했던 아

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값지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상담을 통해 내 마음은 치료중이고, 성장 중이다. 앞으로는 나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고 싶다. 상담자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나를 지지해 주고, 이끌어 주신 상담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나를 위해 같이 울고, 웃어 주신 선생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상담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나를 양재 상담실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 박정규 성도(가명)

내 마음은 치료중이고, 성장 중이다

평일 직장인, 토요일 예배자, 주일 사역자

“주말에도 이웃과 지역사회, 지역교회 섬긴다”

요셉공동체에는 보석보다 빛나는 사역자들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고아원, 지역교회 봉사 등 하고 있는 사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헌신이 뜨겁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평일에는 직장인, 토요일은 예배자, 주일은 사역자로 숨 가쁘게 살고 있다. 치열하게 살면서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다. 요셉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벌써 15년이나 됐다. 청년들의 도심 속 새벽예배 홀리스타 중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광화문 홀리스타에 이어 마포 홀리스타까지 파생시켰다. 요셉공동체 청년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전성권 형제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평일에는 보험회사에 다니고, 주말이면 사역자로 변신한다. 토요일에는 요셉공동체 예배를 섬기고, 주일에는 해화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병원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 벌써 3년째다.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 요셉공동체 비전경영 협의체 팀원들이 서울대학교병원교회 앞에 모였다. 그들은 주보를 들고 병동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소개했다.

서울대학교병원교회에는 4명의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다. 병원에 속한 작은 교회다보니 이 교회 주일학교는 전도사 혼자 사역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도움을 주던 발길이 끊어지면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요셉공동체는 서울대학교병원교회와 3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꾸준히 섬기다 보니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 요셉공동체의 섬김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교회의 칭찬이 그칠 줄 모른다. 그럴 법도 한 것이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어찌나 열심히 섬기던지 그 모습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감동받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서울대학교병원교회 성도들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경우가 많다. 태어난 지 18개월부터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예배드리러 올 때 마다 수십 개의 장치를 매달고 오는 아이,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 밝은 얼굴로 인사했지만 하늘나라에 간 아이 등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성도들이 많다.

요셉공동체 전성권 형제가 “병원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섬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병원교회 주일학교 2부 순서로 종이접기를 하고있다.

요셉공동체의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고 있다. 처음에는 한 개의 협의체가 섬기던 서울대학교병원교회를 지금은 여러 협의체가 함께 섬기고 있다. 셋째 주에는 문화 사역, 넷째 주에는 섬김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제를 정해 예배도 드리고 있다.

그 이름 광화문 홀리스타

“광화문에 산기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권혜경 집사(도곡 기쁜소식교회)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기도 처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광화문 홀리스타를 찾아왔다. 지난 7월부터 참석하고 있다. 그녀는 도곡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집이 성북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새벽

예배 자리를 찾던 중에 광화문 홀리스타를 만나게 됐다.

그녀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스태프들 덕분에 광화문 홀리스타에 정착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화문 홀리스타가 11월 2일이면 9주년을 맞이한다. 광화문 홀리스타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홀리스타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셉공동체는 지난 8년 동안 광화문 스타벅스에서 새벽기도를 했다. 계약이 만료되어 올해 여름부터는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 있는 ‘폴바셋’ 카페로 장소를 이전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뜨거운 기도 열기는 그대로다. 20대 청년부터 80대 장로까지 참석하는 새벽기도회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뿐만 아니라 타교회 성도들도 많다.

비율이 반반이다. 매일 50명 이상이 참석해 1시간 동안 새벽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커피 나눔도 한다.

지난해 5월 친구의 추천으로 광화문 홀리스타에 온 이정향 자매(목동 밀알교회)는 이곳에서 배우자를 만났다. 그녀도 처음에는 매일 지나치던 커피숍(스타벅스)이 기도의 처소라는 소리를 듣고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그런 그녀가 1년 동안 광화문 홀리스타에 참석하면서 달라졌다. “기도와 신앙이 더 성숙해졌다”고 간증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숨은 주역들이 많다. 35명의 스태프와 2명의 새벽예배 팀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외에도 곳곳에 숨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있다. 요셉공동체를 10년 넘게 섬긴 이진숙 멘토는 “요셉공동체 청년들을 보며 배울 점이 많다”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려줬다.

“한 청년은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고, 또 한 청년은 주말이면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 지체장애 아동들을 섬기고 있고, 성인예배 성찬과 성가대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지역교회와 보호시설에서 사역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요셉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역하고 있다. 힘을 누릴 수 있는 황금 주말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지역교회를 섬기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요셉공동체 담당 양재경 목사는 “구별된 청년들의 헌신이 모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칼럼 심희돈 장로(요셉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요셉공동체의 슬로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청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로 나누고, 섬길 때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요셉공동체는 유일하게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대부분의 요셉공동체 청년들은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는 지역교회를 섬기거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등 사역을 멈추지 않는다.

요즘 청년들은 3포, 5포, 9포, N포 세대라고 말한다. 나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지칭어는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격려해줘야 한다.

요셉공동체는 요셉의 믿음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매우 비참했다. 형들에게 버림당한 요셉은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오해를 받고 옥살이까지 했다. 그러나 요셉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좋은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다.

요셉의 믿음이 청년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꿀 것이다. 요셉은 민족을 구했고, 세상도 이겼다. 요셉과 같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요셉공동체에서 10여년 넘게 사역하면서 좋은 멘토 아래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많은 좋은 멘토들이 대학청년부에 와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청년들이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과 용기와 믿음을 줘야 한다.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멘토들의 삶을 간증하며 나눌 때 청년들이 변화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셉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요셉공동체의 믿음을 다음세대들에게까지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우즈베키스탄의
종교한 알렉산드라 목사
(온누리M미션 러시아어 예배)

내가 살던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은 국민의 90%가 무슬림이다.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우즈벡도 예외가 아니다. 우즈벡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고 있지는 않아도 국민들 대다수가 무슬림이다. 70%는 수니파, 20%는 시아파다. 이슬람교는 무함마드의 계승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수니파는 ‘할리파(칼리파)’를,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인 ‘알리’를 무함마드의 계승자로 보고 있다.

우즈벡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

된다. 무슬림들은 교회력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30일 동안 해 뜨기 전부터 해 지기 전까지 금식을 한다. 물론 물과 술, 담배에 이어 부부 생활까지도 금지한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8번 이상 절하며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슬람 교리를 철저히 지키며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 종교는 사파니즘이 혼합된 이슬람교를 추구하고 있다. 세속적인 이슬람을 추구하는 수니파는 사람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시아파 세력의 확산은 차단하고 있다. 과격 단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였다.

예배도, 선교도 어렵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왕조’가 중앙아시아를 점령하면서 공산혁명이 시작됐다. 무신론적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면서 무슬림들이 많은 수난을 겪었다. 1991년 소련 정부가 독립하기 전까지 우즈벡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회교국들은 자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다. 70년 동안 소련에 속한 회교국들은 러시아 정부의 탄압으로 종교에 대한 자유를 표출하지 못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진 이후, 우즈벡에 이슬람교 부흥이 시작됐다. 러시아의 독립은 완전한 자유를 의미했다. 그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상과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고국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혼돈의 시대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종교였다. 이슬람 사원을 새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 이슬람 교육의 중심지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

건축하고, 종교법을 바꾸는 등 급속도로 변화했다. 1991년 전 구소련 시대에 쓰였던 러시아 말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하루아침에 우즈벡어로 대체됐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즈벡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모든 종교 운동에 탄압을 가하고, 크리스천들의 교제 장소를 없애고 있는 추세다. 교회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1991년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우즈벡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우즈벡에 사는 고려인이나 러시아 무종교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했

다. 무슬림에게는 접근하지 못했다. 현재는 외국 선교사들이 종교 비자를 받는 것도 금지한 상태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국가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우즈벡에 들어간 지 20년이 넘었지만 복음화 비율이 기대보다 현저히 낮다. 그러나 전도 금지법이 성행하는 사회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즈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200~300명이 넘는 우즈벡인들이 지하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목회칼럼 박사무엘 전도사(양재 유치부)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어?”



지난 여름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베테랑’은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3위를 기록했다. 이 영화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광역 수사대 서도철(황정민) 형사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베테랑은 신나는 영화다. 서도철 형사의 끈기와 노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하면서 통쾌한 기운이 러닝 타임 내내 흘러넘친다. 돈도 없고, 뺨도 없지만 정의감 넘치는 서도철 형사와 조태오와 그의 오른팔 최상무(유해진)는 극에 깊이를 더해 준다. 영화에서 서도철 형사의 집념에 판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조태오는 최상무의 도움으로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나가면서 한 마디 톡 내뱉는다.

“나한테 이라고도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베테랑의 흥행요인이 연기자들의 잘된 유머와 대사에 녹아있다. 시간이 지나도 관객들에게 남는 여운이 진하다. 내게도 한 문장의 대사가 큰 의미를 던져 주었다. 관할 구역 사건이 아닌데도 서도철 형사가 끊임없이 사건을 파고들려고 하자 관할 구역 형사가 교묘하게 사건을 덮으려 한다. 이 때 관할 구역 형사를 찾아간 서도철 형사가 그에게 한마디 한다.

“너네 돈 먹었지?”

이 말을 들은 관할 구역 형사가 “같은 식구라고 보자보자 하나까”라며 서도철 형사의

먹살을 잡는다. 서도철 형사가 다시 대답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지는 짓은 하지 말자.”

가오는 ‘허세’의 속어다. 이 대사는 남자의 자존심과 경찰의 정의를 표현해주고 있다. 나는 이 대사를 이렇게 적용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

그렇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자존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이름에 먹칠 하는 흔적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베테랑’이라는 단어에도 주목해야 한다. 베테랑은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사람을 말한다. 숙련자, 전문가, 전문가로 순화시켜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거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았다.

교회가 약한 자를 돕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앞장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 물으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라도 좋은 일 하는 곳이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과거와 달라졌다. “교회도 똑같네”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더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해봐야 한다.

영화 ‘베테랑’에서 정의로운 역할을 맡은 서도철 형사는 감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내던져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을 살 때 그것이 참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낮은 곳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자.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의도공동체, 나무심기 행사 참가

노을공원에 '온누리교회 여의도공동체의 숲' 조성

여의도공동체가 지난 주일(18일)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구 난지도)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다. 한때 쓰레기 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난지도를 공원으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사업에 힘을 보탰다. 이날 여의도공동체는 노을공원에 '온누리교회 여의도공동체의 숲'을 조성하고 왔다. 서울시 공원 조성사업에 교회가 참가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교회의 사회참여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간증

아픔의 땅 난지(蘭芝)에 나무를 심으며...

나무심기는 봄에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을에도 나무 심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를 심기 전 간단한 교육을 받고, 일명 '맹꽁이열차'라고 불리는 이동수단을 타고 공원 정상으로 향했다. 이곳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잘 다듬어진 공원을 지나니 등성등성 심어져 있는 작은

묘목들이 보였다. 휘감고 자라나 나무의 숲통을 틀어막고 있는 덩굴도 보였다. 아직도 이곳은 버려진 땅 그대로였다. 오늘 여의도공동체에게 100평의 땅이 맡겨졌다. 그곳을 숲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여의도공동체는 그곳에 '온누리교회 여의도공동체의 숲'을 조성하고 왔다. 숲을 만



여의도공동체가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다.

드는 일은 위대하고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굳어버린 땅에 나무뿌리가 충분히 잠기도록 파내는 것이 시작이었다. 아래 쪽 흙을 부드럽게 다지고, 어린 묘목을 넣고 덮은 다음 물이 넘치도록 주면 되는 것이었다. 어른들은 저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어린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흙을 덮고, 나무에 물을 주었다.

여의도공동체는 앞으로도 그곳을 정성껏 가꿀 것이다. 월드컵 공원 내 노을공원이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깨끗한 생활을 위해 망가지고, 버려진 땅에 생명을 되찾아 줄 것이다. 식목

행사를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난지도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동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황폐한 난지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피폐한 영혼들의 모습이 아닐까. 황폐한 땅을 파므로 가꾸고, 물을 넘치도록 주는 일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아닐까. 난지도에서 묘목을 심고, 숲을 가꾸면서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고 있는지를 돌아봤다. 자연을 돌보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는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 한옥영 집사(여의도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수강생 모집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서빙고 콘서트홀

온누리세계관학교가 11월 2일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세상을 보는 믿음의 안경'을 주제로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5주에 걸쳐 강의가 이어진다. 세계관이란?, 성경적 세계관, 소비주의의 '나의 소유물이 나다?', 과학적 자연주의의 '오직 물질만이 중요하다', 전통문화와 성경적 세계관'이 주제다.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자체 개발한 교재를 이용해 성경적 가치관을

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양육하고 있다. 회비는 2만원이다. 사전등록하면 회비를 5천원 할인해준다. 등록은 아이스쿨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입금계좌: 573-910003-84104 (하나은행, 예금주: 온누리교회)
문의: 02-3215-3267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지역교회 목사 초청해 '사회선교예배' 드린다

11월 3일과 10일 신동아쇼핑 믿음홀

사회선교부가 11월 3일과 10일에 사회선교예배를 드린다. 지역교회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회선교 사례를 들려줄 예정이다.

11월 3일은 한남제일교회 오창우 목사, 11월 10일에는 부천새롬교회 이원돈 목사가 강의한다. 서빙고 신동아쇼핑센터 2층 믿음홀에서 저녁 7시 30분

에 진행된다.

사회선교부 리더십은 물론, 각 공동체 사회선교 사역자와 사회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단기선교사 훈련학교(TP)28기 모집

12월 13일까지 접수

비전빌리지에서 단기선교사 훈련학교(TP) 훈련생을 모집한다. 단기선교사 훈련학교는 2016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을 수료

하고, 2인 이상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성도가 대상이다. 12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 26기 훈련도 2016년 2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31-331-8182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

온누리선교재단에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모집한다.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소지 및 경력자, 신입 또는 경력자 조리원을 채용한다. 세례교인이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경력자를 우대한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이메일(bible81@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보험(화재, 영업배상) 전속계약업체도 선정한다. 문의: 02-3215-3134

서빙고 주사랑 챔버팀 현악기 반주자 모집

바이올린, 비올라 전공자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일 2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주사랑 챔버팀'에서 현악기 반주자를 모집한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전공자가 대상이다.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주사랑 챔버팀은 매주일 오전 8시 지하 1층 성가대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단원 선발 과정에서 별도의 오디션은 실시하지 않는다.

주사랑 챔버팀은 1988년 창단되었다. 지금은 20여 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15년째 주사랑 챔버팀을 섬기고 있는 김진애 관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동역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이철호 팀장 010-2942-7399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축하합니다

10월 세례자

■서빙고
은진화 830927
김지현 861101
김흥집 580606
유해무 560108
이명숙 650916
최옥자 411026
최정심 620418
김현경 830806
김민재 800301
김남이 740327
김현아 670302
신승모 661219

▷ 유아
신아울 150831
신승재 가토치카
김주원 131113
김민규 조신혜
김지아 131106
김현구 서유미
민예지 140905
민경환 강소정
박서준 140112
박훈민 송지선
어태운 140919
여성준 원혜성

한은우 150415
한세일 유은선
황보현 150414
황인규 최진화
황승현 130901
황인규 최진화

■양재

강동구 860225
김동국 540909
김성희 670506
김정순 740624
이옥희 560312

홍성준 660113
▷ 입교
임정훈 860418
▷ 유아
김수인 140717
김정환 엄현애
김아윤 150503
김경석 이선미
김태희 150111
김권종 이수연
마재은 131023

마민철 이미진
민소는 141025
민중근 최문실
박세은 140615
박도형 김정은
신혜원 141105
신재민 이명
안노아 140209
안현호 김효심
이은우 131029
이영훈 정문선
이재희 140605
이성진 김인정

조민근 131206
조영훈 김고은
조현우 150408
조성훈 김유정
최정우 150115
최의림 정소희

인천

배정은 940725
노형진 940314
▷ 입교
조우현 920224

■특별한초대
양진석 860124
박성주 690307

▷ 유아
김하린 140613
김대수 이순영
이시유 140714
이교진 설지현



오이타 기·도·제·목

- 10월 26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 10월 27일(화) 일본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 10월 28일(수) 모든 스태프들이 겸손과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 10월 29일(목) 이재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기를
- 10월 30일(금) 섬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 나에게 홀리스타란?



/ 김유화 자매(요셉공동체)

은혜의 자리

친구의 추천으로 광화문 홀리스타(새벽예배)에 참석하게 됐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곳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사무실 건너편에 보이는 ‘광화문 스타벅스’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눈에 밟혔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몇 년 전 광화문 홀리스타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한두 번 참석했다. 지금은 광화문 홀리스타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광화문은 주요기관이 많다. 직장인도 많고, 학생도 많다. 직장인들이 새벽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야근도 많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버겁기 때문이다. 나는 새벽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을 줄였고, 알람도 30분 일찍 맞춰줬다. 벌써 2년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나에게 새벽예배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손가락만 얹는 은혜의 자리다. 광화문 홀리스타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만 해도 구역에서 기도만 하고 직장으로 돌아가던 나였다. 그런데 새벽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큐티 나눔을 하고 있었다. 무슨 모임인지 궁금해 은근 슬쩍 끼어 앉았다. 출근 전 나눔은 새로웠다. 설교로 은혜 받고, 지체들과 나눔을 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다. 새벽예배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줬다. 지금은 35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새벽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벽예배 큐티 모임 테이블 리더부터 시작해 팀장으로 섬기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올 여름에는 8년 동안 지속했던 광화문 홀리스타 장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내심 두려웠다. 홀리스타 스태프이며, 멘토님들에게 찾아가 기도를 요청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던 중에 광화문 폴바셋 카페를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매니저가 기독교인이었다. 우리는 함께 물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되었다.

우리는 이곳에 오전 6시 15분에 도착한다. 15분 만에 세팅을 해야 한다.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새벽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다. 우리에게 빵도 주고,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연과 격려도 해준다.

지금도 광화문 홀리스타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곳에 오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매일 가볍지는 않다. 스태프들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섬기며 은혜받고 있다. 특히 함께 이 자리를 섬기고 있는 김소망 팀장의 역할이 매우 크다. 광화문 홀리스타가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앞으로도 광화문 홀리스타가 사랑과 나눔이 깊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10월 세례간증



/ 김지현 성도(마포공동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철없던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주는 사탕 목걸이를 받고 싶은 마음에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갔다. 그 이후로 주일학교, 수련회를 열심히 다녔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교회와 멀어졌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 문득 교회에 다시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과 언니의 권유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성인이 되어 처음 맛보는 자유와 대학생활의 즐거움에 빠져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인데 왜 이 모든 게 하나님 덕이라고 하는 걸까”라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교회를 떠났다.

2010년부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권유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남자친구의 권유에 마지못해 나온 것이었다. 2011년 경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다. 그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무기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던 나는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누군가를 원망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졌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무만저 준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살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기꺼이 받아주셨다.

작년에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대학교 1학년 때 6개월도 다니지 못하고 떠났던 것을 반성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새가정의 시작을 온누리교회와 함께 하고 싶었다. 한동안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성령 충만한 예배와 말씀을 들으며 세례교인이 되어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년 봄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더욱 건강하고 단단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었다.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 있었던 적이 많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게 해주셨다.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충실히 살아가고 싶다.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간증



/ 호유미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이름표 떼고 다시 시작한다

나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어릴 적부터 매해 여름과 겨울에 있는 수련회에 빠진 적이 없었다.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 봉사를 했다. 교회에서의 일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쉽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언제부턴가 교회를 잘 다녔지만 내 영혼에 채워지는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신앙생활이 주님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 가고 있었다.

다양한 설교방향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 가던 중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온 가족이 함께 왔다. 신앙경력, 누구의 딸, 무슨 봉사를 했던 누구, 어떤 직분에 있었던 사람 등 그동안 나에게 달려있던 이름표를 다 떼어 내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새가족반에 등록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는 신앙의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천편이라고 느껴졌다.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았다. 그동안 많이 갑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예수님을 믿고 죄 사

함 받은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다. 기도는 나의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는 마음도 생겼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시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순종은 내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가 먼저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내가 있는 곳이 사역지 이기에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름표 떼고 다시 시작한다’는 나의 첫 걸음을 통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회사, 가정, 생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변화 시켜 주셨다. 앞으로는 내 계획과 지체로 계획을 짜서 하려고 했던 지난 생활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 CGNTV <생명의 삶> QT 간증수기 공모전 수상작



/ 홍애경 성도

에스더처럼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라고 엄마는 나에게 친정 식구들과 함께 용평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3년 전, 나는 사랑하는 큰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은 남편과 작은딸과 함께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날도 힘들지만 특히 명절과 크리스마스, 생일날 같은 때 정말 많이 힘들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여행을 가자고 하니 마음이 아팠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하니”(에 4:19).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나는 9월부터 시작한 <생명의 삶> 에스더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왕궁으로 끌려갔던 에스더처럼 하나님은 큰딸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면서 죄 속에 빠져 살던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 몰약과 향품으로 정결케 하는 기한을 가져야 했던 에스더처럼 주님은 나를 정하신 날 만큼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롭게 하

셨다. 딸을 천국으로 보내고 거의 일 년은 집안에 틀어박혀서 울며불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에스더가 정결케 된 것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셨다.

“너 혼자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친정 식구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번 친정 식구와 함께가는 여행은 하나님을 전하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작은딸과 함께 QT 말씀을 나누면서 여행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과 딸도 무조건 여행을 가야한다고 했다. 나는 용평에서 친정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가족들과 함께 동역했다. 그리고 일 년이 지났다. 그 사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이야기 하면 불편해 하던 친정 식구들이 이제는 만날 때 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온 가족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



장로칼럼 남정진 장로(새사람사역팀)

내가 먼저 예수바보가 되자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빛진 자들이다. 새사람사역팀 소속 21명의 봉사자들이 그 빛을 갠으려고 여주 소망교도소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재소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권면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다.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재소자들도 있었다. 불신, 분노, 억울함, 미안함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봉사를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었다. 불신자도 있었고, 초신자도 있었다.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맞춤 양육을 했다. 새사람사역팀만이 할 수 있는 전도사역을 했다. 재소자들과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로 오전, 오후에 한과씩 9주 동안 전도하고 교육했다. 그들이 변해갔다. 경계심이 친근감으로, 비난과 비판이 감사로 변해갔다. 우리는 그들에게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였고, 할머니였고, 어머니였고, 누님이었다. 군대에 보낸 자식이 늘 가슴에 걸리는 것처럼 양육이 끝난 지금도 그들이 우리들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만나면 기뻐하고, 헤어지면 서운했다. 매주 아쉬움을 안고 돌아왔다.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애뜻한 마음이 생겨 한 주간 내내 기도했다. 먹고 싶다는 간식도 준비해 갔다.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만화 성경책을 사다줬다. 사비로 영치금을 준 봉사자도 있었다. 갈 때는 그들을 만났다는 기대감으로 갔고, 돌아올 때는 자식 자랑하듯 자랑도 하고, 흥도 봤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사역에 동참한 봉사자들은 직분이 다양했지만 예수님을 전한다는 마음은 하나였다. 직분을 떠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우리들과 만난 재소자들이 변해갔다. 출소하면 교회에 가겠다고 했다. 예수를 믿고 싶다고 했다. 우리처럼 봉사도 하고 싶다고 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들의 가슴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갔다. 아름다운 싸움이 움트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다. 누가 저들에게 죄인이라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누가 저들에게 믿을 없다고 무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랬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수없이 들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영육간의 갈등 속에서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 낮은 곳 더 낮은 곳, 예수바보행전은 구호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갇힌 곳은 ‘예수 바보행전’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을 섬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섬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들은 복음에 목말라 있다. 새사람사역은 말랐던 눈물이 다시 샘 솟게 하고, 텅 빈 가슴이 채워지게 하는 은혜가 있다. 재소자들이 출소해서 찾아오면 편견을 갖지 말고 반갑게 맞아주고 격려해 주자.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자. 믿음으로 맺어진 연약한 형제들이요, 지체들이기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 내가 먼저 바보가 되어보자. 그러면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권사칼럼 김진애 권사(이수공동체)

큐킹(Q.T + Cooking) 클래스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누군가 내게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물으면 당연히 요리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챔버팀에서 현악기를 다루지만, 단을 내려오면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다. 지금도 매주 권사스쿨이 열릴 때면 절기에 따라 아이디어를 내서 강사들의 테이블을 꾸민다. 가을이면 감과 열매를 장식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새빨간 사과를 직접 파서 그 안에 초를 넣기도 한다. 강의 주제에 맞게 세팅하고, 예쁜 찻잔에 차와 간식을 담아내는 의전 역할은 내게 가장 적합한 섬김의 자리인 것 같다.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며 느낀 것이 아주 많다. 하나는 낮아진 마음은 섬김의 모태이며, 또 하나는 가정에 밥상공동체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이다. 우리 집은 두 명의 딸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침마다 밥상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현대 사회에서 아침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의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 것을 약속처럼 지키고 있다. 젊고 바쁜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자 사랑을 주는 공급처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매년 절기나, 크리스마스면 어김없이 자신 있는 요리로 한 상을 채운다. 둘째 딸은 어찌 너머로 배운 요리 실력인지 자세히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 요리를 표현하고, 애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한다.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다.

나에게는 또 하나의 섬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큐팅(Q.T)과 요리(Cooking)를 접목시킨 ‘큐킹 클래스’ 방식으로 하고 있다. 큐킹 클래스는 내가 붙인 말이다. 일대일 나눔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다. 요즘 젊은 자매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들에게 요리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자매들은 사회 생활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한다. 정말 할 일이 많다. 나는 바쁜 자매들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요리 레시피를 선물한다.

일대일은 삶을 나누는 것이기에 자매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대일을 하며 요리방법을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아한다. 간혹 큐팅을 하면서 큐팅 주제와 어울릴만한 레시피를 엮서처럼 만들어 선물한다. 그들이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정성스레 만들어 준다. 삶 속에서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에게 요리 레시피를 선물하면 그들 가정에 사랑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백화점과 문화센터에 비싼 돈을 주고 요리를 배운다. 나는 바쁜 자매들과 일대일을 하며 복음과 요리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 바쁜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교회와 가정의 안살림을 멋지게 섬기는 여종이 되자고 말이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듯, 섬김도 여러 손길이 모이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녀들이 나눔의 자리에서 맛과 멋을 즐길 줄 아는 아름다운 여종이 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유현목 목사(오쿨랜드 은누리교회)

부활신앙

2012년 개봉된 영화 ‘호빗’의 배경이 된 호빗 마을은 뉴질랜드 북섬 중부 마타타타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동화같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개성 있는 호빗들의 아기자기한 보금자리가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고 있다. 호빗의 모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의 중심 주제는 사실 물질에 대한 탐욕이다.

이 영화에서 탐욕의 화신으로 용 ‘스마우그’가 등장한다. 궁전 깊은 곳에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침대 삼아 잠을 잔다. 그는 탐욕 자체이며, 절대적 탐욕의 소유자다. 그 많은 보물 중에 작은 컵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분노하는 모습은 맹목적인 탐욕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용의 보물을 되찾는 모험이라는 이 영화의 구도는 탐욕의 화신 스마우그가 죽은 이후 갈등이 더욱 깊어진다. 스마우그가 독차지했던 보물을 더 이상 지키는 자가 없어지자 모든 등장인물들 마음속에 숨어있던 탐욕이라는 괴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용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난쟁이들의 첫 환호성은 “보물은 이제 우리 것이다”라는 외침이었다. 이 영화에서 탐욕은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한다. 타인의 비참함

에 대한 동정심마저도 질식시켜 버리고, 보물의 소유가 가치 화될수록 탐욕 역시 맹목적이 되어 갔다. 이렇듯 물질에 대한 탐욕은 삶의 가장 근원적인 현상 중 하나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삶에 뿌리를 이루고 있는 탐욕의 강력한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예외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몸짓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들 자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눠줌으로 핏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 이기심과 욕심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부활신앙’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보화를 쌓았다.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을 때 땅의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기 것을

꾸리고, 이기적이고, 물질에 얽매는 것은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이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한계 앞에 돈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에 눈 뜬 신앙이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세상이 더욱 위험해진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질식시키는 유한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호흡한다. 영화 호빗의 주인공 빌보는 탐욕에 관한 자의 관점을 가장 잘 담아낸 인물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빌보는 자신이 가지고 온 보물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뒤 시를 쓰고 이웃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내가 진정 이 땅의 물질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부활신앙에 있다. 자기를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진정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아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닐까.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우리는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화개하라고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기거나, 마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멸망 받아 마땅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위치로 옮겨지는 것이 화개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베드로는 화개의 필요성을 구약의 역사에서 찾아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인용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통해 화개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22~23절).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 “그분의 말씀은 다 들어라. 만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곧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 받을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패 씌죄로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멸망에 처해 있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원래 결정된 대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화개함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3:25).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 내용은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인해”라고 할 때 그 후손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썼습니다. 왜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썼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화개를 통해 멸망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순서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는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엄격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멸망시키 시켰다는 경고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기가 막힙니다. 모세의 율법을 먼저 인용하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인용하면서 멸망에서 복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기간은 땅의 모든 족속이 멸망의 자리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오도록 우리가 증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끝내버려도 되는데 왜 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까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증인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까지 증언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간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에 역사가 맡겨졌습니다. 역사적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인의 사명을 다할 때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무서운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개를 통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써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바보행전은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알기 쉬운 예배상식 이기진 목사(강남C공동체)

찬양대 ① : 예배자가 곧 찬양대

313년 2월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다.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선언하면서 길었던 기독교 박해 시대가 막을 내린 날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공인되어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박해의 시간 동안 동굴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급속한 교회의 확산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지만 한 가지 고민에 빠진다. 개종한 이방인들을 통해 이방종교의 관습이 배어있는 창작 음악들이 예배가운데 회중 찬양으로 불러 지면서 찬양을 통한 이단 교리가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이다. 336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두 가지 예배찬양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 첫째는 회중 찬양을 금지하고 지정된 찬양대만 예배에서 노래 부르게 하는 것, 둘째는 창작 가사의 사용을 금지하고 시편과 성경에 있는 가사만을 예배에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 가운데 공식적으로 ‘찬양대’가 등장한 의미 있는 결정임과 동시에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들이 찬양에서는 수동적인 위치로 밀려나는 결정이기도 했다. 지금 온누리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을 생각하면 놀라운 사실이지만, 교회는 소수의 성직자와 훈련된 찬양대 외에는 누구도 예배시간에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회중이 능동적으로 찬양의 주체로 예배의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는 본래 가톨릭교회의 사제인 동시에 예배에서 찬양을 전담하는 소년 성가대 출신의 훌륭한 음악가였다.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예배에서 성직자, 찬양대에 집중되었던 찬양을 회중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한 선율 중심의 중세 예배 찬양이었던 그레고리안 찬트 외에 독일 가곡이나 민요의 대중적인 선율과 화음을 예배 안으로 가져왔으며, 전문적인 직업 음악인으로 구성되었던 중세적 찬양대에 이제는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예배 찬양에 있어서는 오히려 루터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예배에서 찬양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회중찬양만을 예배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배에서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시편으로 이루어진 찬양 가사를 단순한 선율로 모든 회중이 부르는 것이 유일한 예배의 찬양이었고, 이것이 장로교회의 예배 찬양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칼빈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회중 전체가 곧 찬양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까지 개혁교회 전통의 예배 찬양은 시편이나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한 가사에 단순한 선율을 얻은 찬송가 외에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찬송가공회에서 발간한 찬송가에는 현재 이런 엄격한 의미의 찬송가는 채 40%가 되지 않

는다. 오히려 복음성가로 알려진 찬양들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복음성가는 주로 19세기 미국 부흥운동과 함께 대중집회에서 불렸던 찬양이다. 감성적 음악적 접근을 통해 불신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화개시키며, 영적인 나태에 빠진 성도들을 각성시키고자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다. 따라서 가사의 내용에 있어서 찬양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19세기 이후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부흥집회에서 불린 복음성가들을 예배의 찬양으로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예배 찬양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새삼 예배 찬양으로 ‘찬송가인가? 복음성가인가? CCM인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드러진 찬양은 인간 정서에 자극을 주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근원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 본질이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찬양은 과도할 정도로 단순하다. 그래서 현대적인 음악적 감수성 측면에서 지루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한 가지 소중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는 찬양인도자, 연주자, 찬양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이 ‘제1의 찬양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예배자가 곧 찬양대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곧 온누리교회 찬양대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 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 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 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 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종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허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8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팍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중국어예배 13:30 경찬홀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수 오전 9:15 누리를

양재: 매주 수 오전 9:15 화평홀

도곡: 매주 수 오전 9:30 온유희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2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

-양재역 10번출구 9:00 출발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여성사역 교회큐티방

월요나눔방 9/7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화요나눔방 9/1개강 10시-12시30분, 드림홀

수요나눔방 9/2개강 1시-3시, 신관203호

목요나눔방 9/3개강 1시-3시, 신관203호

금요나눔방 9/4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문의: 여성사역(02-3215-3247)

2000선교본부 전임 간사 모집

내용: 전임 간사 1명(남여구분없음)

필수요건: 선교 관심자, 인사, 경험자 우대

업무: 온누리교회 선교사 지원 및 행정

규정: 교회 내 간사 규정에 따름, 6일 근무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

서(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접수: yusup@onnuri.org, 11월 5일까지

문의: 전영옥 간사(02-3215-3216)

OEM한국어교실 교사(봉사자)모집

요일: 매주 토요일(계절방학있음)

제출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지원자격: 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전공자나 한국어교육 경험자 우대)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꿈사랑부(장애 아동부서) 교사 모집

분야: 반주, 율동, 영상 PPT,

아동 일대일(세례교인, 등록교인)

일시: 매주일 9시 신관 302호

문의: 홍재화 예배팀장(010-9018-3658)

송지은 전도사(010-8286-8526)

CMN 마하나임팀 봉사자 모집

장소: 강원도 고성 송정 교회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일시: 11월 22일, 서빙고 오전 7시 정각

내용: 의료, 미용, 한방, 수기 치료, 경로사진

회비: 1만원

참여: 의료 봉사에 관심있는 모든 분

문의: 권세윤 팀장(010-8898-3719)

자바(JAVA) 개발자 모집

대상: 프리랜서 JAVA 개발자, 재능 기부자

자격: JAVA 개발 경력 3년 이상

(Spring 프레임워크 개발 경험자 우대)

기간(예정): 11.1~2016.4.30(6개월)

모집: 11월 10일까지

문의: IT전략기획위원회 총무 김준도

(010-8846-1031)

온누리 남성성교 합창단원 모집

자격: 온누리 교인 30~50대

연습: 매주 화요일 서빙고신관 402호

19:30~21:30

문의: 양두호 총무(010-8702-2854)

*게시판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본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학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희(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희(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4336-0952, *통역 지원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

회사 교수 초빙

자격: 영어와 한국어로 능숙하게 강의

하실 수 있는 분

접수기간: 10월 26일(월)~11월 2일(월)

자세한 사항은 www.ttguaackr 참조

문의: 02-570-7381

일대일 양육자반

김영배 목사반

일시: 11월 1일~16년 2월 14일(일),

8:30~10:30

장소: 강의동 304호

문의: 김주혜 간사 570-7349

세네갈 모자보건사업 회계 담당자

모집(더멋진세상)

인원: 1명

업무: 세네갈 KOICA모자보건사업의

회계업무 및 행정 업무 담당

모집기간: 11월 8일까지

자격: 회계 업무 유경험자, 선교 관심자

제출: 이력서, 자기소개서(자유 양식)

smjiang@abetterworld.or.kr

문의: 모자보건 담당자(02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선교기념관”
You Tube 채널 CGNTV

내가 사랑한 조선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를 세운 여성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메리 스크랜턴, 로제타 홀, 여메레 등
이땅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던 분들의 헌신과 한국교회의 초심을 되새겨봅니다.

〈주요 프로그램〉

[예고]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여성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다큐] 블랙마운틴 외 (1편)
[세미나]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12강)	[단편] 내가 사랑한 조선 (9편)
[기획] 선교 130주년, 복음의 씨앗을 기념하며 (14편)	[만화] 1907 믿음의 사람들 (46편)
	[뮤직] 언더우드의 기도 외 (7곡)

• 시청 방법: 구글 또는 유튜브앱에서 'CGNTV 내가 사랑한 조선' 채널 검색
• 문의: 02-3275-9441

“CGNTV에서 부문별 경력/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방송선교에 비전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모집분야: 후원, 재정, 해외콘텐츠 기획, 보도, 홍보, 제작, 편집, 카메라, 무대세트
- 지원기간: ~ 채용시까지
- 지원방법: 이메일접수 (각 담당자)
- 제출서류: 자사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gntv.net

Global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CGNTV

Tv 프로그램



▷ 앵코르 특집 방송
〈블랙마운틴 :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10/25(일) 오후 8시 40분
한국의 복음화에 헌신한 해외선교사들의 사역을 돌아보고, 은퇴 후에도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 여성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11/1(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해 조선 여성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조선 선교를 개척했던 여성 선교사들의 인생과 삶을 되짚어보며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는 다큐멘터리.



▷ 오이타 러브소나타
-10/31(토) 오후 9시
-11/2(월) 오후 9시 40분
10월 29일 일본 오이타에서 열린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10/25(주일)	10/26(월)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10/31(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상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0:40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순종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16:50 매트 찬들러의 야고보서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페리 노블의 성장하는 교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열매인온누리교회) 16: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임니까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건강한 가정 세미나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2015 예배선교 컨퍼런 스 COUNTDOWN 주제강의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항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찬양] 신사예배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찬조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10: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IN2)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예배선교 컨퍼런 스 COUNTDOWN 주제강의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 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사도행전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선 프린스의 은혜 11:10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맞춤특강 〈나침반〉 16:30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사람들 19:00 2015 예배선교 컨퍼런 스 COUNTDOWN 주제강의 20:30 힐송 컨퍼런스 21:00 오이타 러브소나타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